

벤투 감독 떠났다... 김대원·이승우 등 대표팀 승선할까?

벤투 감독 받지 못했던 김대원·이승우 주목
K리그 우수 선수와 해외파, 황선홍호 등 관심
새 감독 전술 스타일에 따라 면면 달라질 수도

2022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을 달성한 파울루 벤투 감독이 13일 한국을 떠났다. 이에 따라 대표팀 감독 교체가 확정된 가운데 그간 뛰어난 기량을 갖추고도 대표팀에 승선하지 못했던 선수들이 기회를 얻을지 주목된다.

벤투 감독은 13일 오후 한국을 떠나 고국 포르투갈로 향했다. 벤투 감독은 역대 2번째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업적에도 불구하고 대한축구협회와 계약 기간 등 이견 끝에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차기 감독이 누가 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새 대표팀 선수 구성이 어떻게 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벤투 감독은 카타르월드컵을 목표로 조직력과 전술을 다지기 위해 비교적 한정된 범위에서 선수들을 선발해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선수들은 뛰어난 기량과 소속팀 활약에도 불구하고 부름을 받지 못했다.

올 시즌 K리그 1 강원FC에서 12골 13도움으로 맹활약한 김대원을 비롯해 국내 무대 복귀 첫 해 14골을 터뜨린 수원FC 이승우 등

이 대표팀에 승선할지 주목된다.

올해 K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했던 오현규, 양현준, 조영욱, 엄원상, 허영준, 강성진, 고영준, 황재원, 박용우, 이규성, 고재현, 정재희, 설영우, 박진섭 등이 대표팀 승선을 노릴 만한 자원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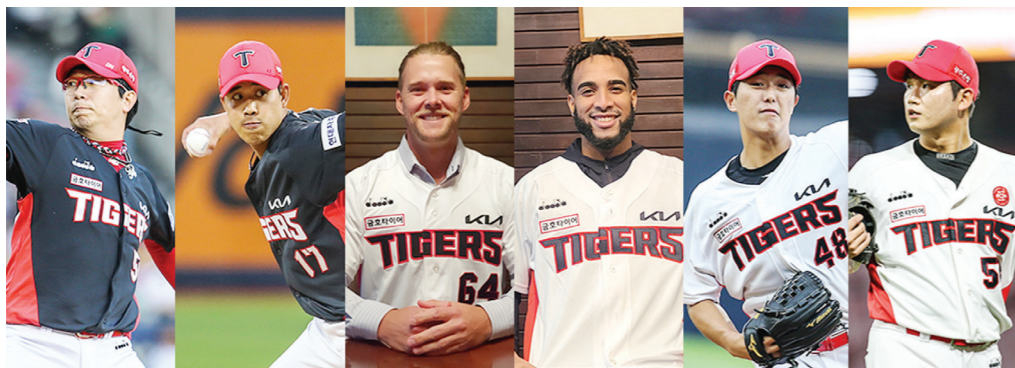
K리그 울산현대를 떠나 나란히 독일 분데스리가로 향했지만 소속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동준과 이동경도 기량을 회복한다면 대표팀에 이름 올릴 수 있다.

황선홍호에 포함되는 독일파 이현주, 박규현, 홍윤상 역시 대표팀이 욕심낼 만한 자원이다. 벨기에 프로축구 KAA 헨트에서 활약 중인 홍현석도 있다.

새 감독의 철학과 스타일이 중요해졌다. 새 감독이 어떤 전술을 선호하느냐에 따라 대표팀 선수들의 면면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뉴시스



KIA '선발진 60승' 결코 꿈만은 아니다

새 외국인 투수들 '파이어볼러'... 양현종·이의리 꾸준함 필요

타이거즈 새 선발진이 몇 승을 합작할까? KIA 타이거즈가 손 앤더슨(28)과 아도니스 메디나(26)를 새롭게 영입해 외국인 구성을 마쳤다. 앤더슨과 메디나는 150km가 넘는 강속구를 뿌린다. 평균구속은 140km대 후반이다. 변화구 메뉴로는 앤더슨은 슬라이더를 주무기로 쓰고 있고 메디나는 체인지업에 커브까지 다양하다.

특히 이들은 강력한 구위로 타자들을 제압하는 파이어볼러다. 이들이 다치지 않고 풀타임으로 30경기 선발등판을 하며 이닝이더로 자리만 지켜준다면 승리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앤더슨과 메디나의 입단으로 10개 구단 가운데 빠지지 않는 선발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 타자들의 커트 능력과 선구안을 얼마나 버티느냐가 관건이다. 팀을 우선하는 분위기에 적응하려는 의지와 성격도 중요하다.

동시에 외국인 편치들과 함께 선발진을 이끄는 국내파 투수들의 활약도 중요하다. 올해 나란히 두 자릿 수 승리를 내며 22승을 합작한 최완 두오 양현종과 이의리의 꾸준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앤더슨-메디나 외인들과 함께 든든하게 마운드를 지키려면 실제로 최강 선발진을 가동할 수 있다.

양현종은 2022시즌 30경기에 등판해 175%

이닝을 소화했고 시즌 12승(7패), 평균자책점 3.85를 기록했다. 내년에도 올해 같은 이닝과 성적을 내준다면 박수를 받을 것이다.

이의리는 29경기에 등판해 154이닝을 소화했다. 첫 규정이닝을 소화하면서 풀타임 선발 투수로 인정을 받았다. 평균자책점 3.86, 퀄리티스타트는 12번이었다. 이의리는 직구와 변화구 모두 위력적이다. 특히 제구를 갖춘 이의리라면 무서울게 없다.

2년 연속 풀타임을 소화하는 내구성도 유지해야 한다. 이의리의 진화가 이루어지면 KIA 선발진은 더 강해진다.

임기영도 빼놓을 수 없는 선발 자원이다. 경험과 마운드 운영 능력은 선발투수로 모자람이 없다. 임기영은 22시즌 ERA 4.24를 기록했으나 승률이 따르지 않아 4승에 그쳤다.

여기에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김기훈, 신인 윤영철 등이 선발 경쟁에 가세했다. 불박이가 아니더라도 돌아가며 선발로 기용할 수 있다. 선발투수들은 모두 두 자릿 수 승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목표 승수를 합하면 60승이 넘는다. 2022시즌 KIA 선발승은 41승에 불과했다. 2017년 선발승은 63승이었다. KIA는 그때 우승했다. 선발 60승에 대한 기대가 결코 꿈만은 아니다.

이슬비기자

벤투 감독 마지막 편지 "한국은 항상 제 삶의 일부일 것"

"선수들 항상 제 마음속 영원히 함께"
"제 인생에서 절대 잊지 못할 경험"

파울루 벤투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마지막 편지를 띄우고 고국 포르투갈로 떠났다.

14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벤투 감독은 전날 출국 전 편지에서 "한국은 항상 제 삶의 일부일 것이며 우리 선수들은 항상 제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벤투 감독은 "선수들이 보여준 자세와 태도에 감사드립니다. 선수들은 제 인생에서 절대 잊

지 못할 가장 아름다운 경험을 할 기회를 줬다"며 "좋은 순간도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움에 대처하는 우리 선수들의 능력이었다. 이는 우리를 팀으로서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코칭스태프의 지식과 프로의식, 결속력 없이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코칭스태프에 공을 돌렸다.

벤투 감독은 "이제 한국 축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미래를 바라보며 떠나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16강 주역 김민재 튀르키예행... 나폴리 훈련 합류

나폴리 리그 우승·챔스 선전 힘 보탬 듯... 피로 해소·종아리 부상 회복 관건

한국의 2022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끈 김민재(26·나폴리)가 출국해 소속팀 훈련장에 합류한다.

김민재는 오는 15일 새벽 인천공항을 떠나 튀르키예에 이스탄불로 향한다.

튀르키예에는 김민재 소속팀 나폴리의 전지훈련 장소다. 나폴리는 월드컵 휴식 기간 동안 튀르키예에 남부 휴양지인 안탈리아 근교에 캠프를 차리고 훈련과 함께 친선 경기를 치르고 있다.

김민재는 카타르월드컵 16강 브라질전 패배 후 지난 7일 귀국해 국내 일정을 소화하고 휴식을 취했다.

나폴리도 복귀한 김민재는 나폴리의 리그 우승과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선전을 위해 다시 뛰는 나폴리는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에서 개막 후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2위

AC밀란에 승점 8점 앞선 1위에 올라 있다. 나폴리의 다음 리그 경기는 내년 1월5일 인터밀란전이다. 나폴리가 우승하면 1990년 후 32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다.

나폴리는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순항 중이다. 조별리그를 1위로 통과한 나폴리는 내년 2월 22일 독일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 16강 1차전을 치른다.

나폴리 수비를 이끌어온 김민재가 활약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몸 상태 회복이 급선무다. 월드컵 전까지 누적된 피로와 월드컵 기간 중 발생한 종아리 근육 부상에서 김민재가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관건이다.

컨디션 회복은 김민재의 미래와 직결된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알 마드리드 등 유럽 최고 명문 구단이 김민재 영입에 관심이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김민재가 월드컵 후



에도 활약을 이어갈 경우 이적설에는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뉴시스

아르헨 감독 "메시 지휘하는 것은 특권이자 영광"

"메시 역사상 가장 훌륭한 축구선수"
결승행에 "우리는 역사를 새로 써"

2022 카타르월드컵 결승에 진출한 리오넬 스칼로니(44) 아르헨티나 감독이 리오넬 메시를 지휘하는 것은 특권이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폭스스포츠와 ESPN 등 외신에 따르면 스칼로니 감독은 14일(한국시간) 대회 준결승에서 크로아티아를 3-0으로 이긴 뒤 기자회견에서 "메시가 역사상 가장 훌륭한 축구선수라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다"며 "나는 오래 전부터 그렇게 말해왔다"고 밝혔다.

스칼로니 감독은 "메시가 뛰는 모습을 보고 그를 지휘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며 "메시의 플레이를 보고 동료들과 아르헨티나인들, 전 세계인이 힘을 얻는다. 메시가 있는 선수를 이끄는 것은 특권"이라고 말했다.



준결승 크로아티아전 지휘하는 스칼로니 아르헨티나 감독.

그는 결승 진출에 관해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로 벅찬 감정"이라며 "아르헨티나 국민으로서 항상 꿈꿔왔던 일"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고 그 성원을 느끼고 있다. 이는 잊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는 지금 역사를 새로 쓰고 있고 그래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LPGA 입성 유해란 "한국서 익힌 아이언샷 주효"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퀘리파이 시리즈 1위를 차지하며 내년 LPGA 투어 출전권을 딴 유해란(21)이 소감을 밝혔다.

유해란은 지난 13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20위 안에만 들자하고 마음 편하게 갔는데 수석으로 통과해 기분 좋다"며 "당시에

는 딱히 수석이거나 하는 느낌이 없었는데 한국에 와서 많은 분이 축하해줘 실감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수석 통과 비결에 관해서는 "한국 코스에서 정확한 샷을 하다 보니 아이언샷이 좋아서 버디 찬스가 많이 나온 게 좋은 결과로 이

LPGA 퀘리파이 시리즈 수석 "그런 주변 세이브 능력 기르겠다"

어린 것 같다"고 평했다.

유해란은 LPGA 투어에 임하는 각오를 묻는 질문에는 "LPGA투어는 매 대회 코스 상태도 다르고 그런 상태와 날씨도 바뀐다고 들었다"며 "적응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해야겠지만 그것도 배우는 것이라 생각하고 1년 동안은 성적 보다는 적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신인왕에 관해서는 "(한국에서) 신인상을 타봤기 때문에 부담이 있지는 않다"며 "그래도 신인으로 뛰는 것은 1년이라 신인상을 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해란은 미국 진출 전 보완할 점에 관해서는 "항상 부족한 게 그런 주변 샷게임과 퍼트 부분"이라며 "올 겨울에 그런 주변에서 세이브 능력을 기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영어 구사에 관해서는 "언어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아직 부족하다.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미국) 생활은 매니지먼트와 부모님 도와줄 것 같아서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뉴시스